

국어 청자 존대어 체계의 기술을 위한 방법론적 검토*

왕 한 석

1. 서 론

국어에서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다양한 어휘적 형태적 변이형들에 의해 명시적으로 표현되는 복잡한 존대말(honorifics)의 체계는, 근대 언어학적 연구가 시작된 이래 많은 국어학자들의 문법적 논의의 한 중요 주제가 되어 왔다. 국어학자들은 일반적으로 존대말이 우리 말 문법의 전체체계내에서 중요한, 그리고 통합적인 일부분을 형성한다는 사실을 명확히 지각해 왔으며, 나아가 존대말의 적절한 사용이 사회적 상호작용에서도 또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는 사실을 함께 인식해 왔다. 국어(및 일본어)에서 존대말이 갖는 중요성을, 영어에서의 단수, 복수의 표시나 정관사, 부정관사가 갖는 문법적 중요성에 대응시킨 Martin (1964: 407)의 유추는, 이러한 맥락에서 국어 존대말의 상대적 비중에 대한 적절한 비유가 될 것이다.

국어 문법학자들은 존대 말의 체계를 분류하는 데에, 지금까지 대체로 두 가지 방식을 발전시켜 온 것으로 보인다. 첫째의 방식은, 형태소 자체가 갖는 의미 기능이 존대법의 구분에서 보다 근본적인 기준인 것으로 보고, 국어의 존대법을 “**恭遜法**”, “**尊散法**”, “**謙讓法**”으로 분류, 명명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면, 이충녕 1964, 안병희 1967: 206-09). 또 다른 방식은, 기본적인 분류의 기준을 화자에 의해 존대되는 (또는 존대되지 않는) 표적이 문장이나 담화의 틀내에서 차지하는 위치로 파악하는 방식이다. 이 시각에서는, 존대

* 본고는 필자의 학위논문 (왕한석 1984) 중 제 3 장의 일부를 부분적으로 수정 재구성한 것이다. 학위논문 및 본고의 기초가 되는 현지 조사는 1982년 1월부터 1983년 2월까지 약 13개월 간 경상남도 서북부의 지화리(가명)에서 행해졌으며, 이 연구는 미국 사회과학 연구 협의회의 연구비 지원에 의해 이루어졌다. 원래의 논문작성에 많은 도움말을 주신 Claudia Mitchell-Kernan 및 Keith T. Kernan 교수, 본고의 작성에 귀중한 도움말을 주신 Roger L. Janelli, 崔明玉, 李翊燮 교수, 그리고 본고를 어학연구지에 실어주신 李廷故 교수 및 편집위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 특히 李翊燮 교수는 본 논문의 초고에서 잘못 이해된, 그리고 잘못 기술된 부분에 대해 많은 귀중한 가르침을 주셨음을 명기한다.

법을 “말 듣는이의 높임”과 “월 임자의 높임”으로 이분하든가(최현배 1955: 777-90), 또는 “相對尊待”, “主體尊待”, “客體尊待”的 삼분법(허옹 1963: 7-122)을 제시한다. 어떤 말 행위(speech act)내에서 존대말이 갖는 기능적 측면을 보다 중시하는 두번째의 분류방식은, 존대말을 “청자 존대어(addressee honorifics)”와 “지칭자 존대어(referent honorifics)” 등으로 구분하는 언어학 일반의 용어(예를 들면, Brown and Levinson 1978: 185-86, 281-85)와도 대응되는 것으로 보인다.

현대 국어에서의 존대말의 체계는, 주체 존대어 및 객체 존대어가 단지 존대와 비존대(또는 중립)의 이원적 구분만으로 조직됨에 비해, 청자 존대어는 존대의 정도가 각기 다른 여러 개의 등분들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현대 국어의 존대말은, 지칭자 존대어의 측에서보다 청자 존대어의 측에서, 더 발달된 복합적 체계를 이루고 있다.

국어에서 청자를 향한 존대 표현의 위계적 등분들, 즉 청자 존대어는, 분석적으로는, 각기 “종결어미”, “호칭어(address terms)”, “인칭 대명사” 등 간의 “共起關係” 또는 “呼應關係”(co-occurrence relationships) (Gumperz 1964, Ervin-Tripp 1969, 1972)에 의해 파악되는 일련의 대립적인 말씨 체(speech styles)로써 조직된다. 청자 존대어를 이루는 이러한 주요 구성 요소들 중, 형태적 변이형들인 종결어미의 집합은, 다른 요소들보다 좀더 체계적으로 분포되고, 또 실제의 말화에서 비교적 덜 생략되므로, 국어 청자 존대어의 구성에서 가장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한다. 이러한 종결어미의 등분화된 部類(class)들을, Martin (1964)은, 한국어에서의 “말(의) 단계”(speech levels)로 명명하였고, 이후 많은 학자들이 이 용어를 그대로 따르거나 또는 부분적으로 수정하여 지칭해 왔다(예를 들면, 장석진 1973: 38-69, 황적륜 1975: 68-69, Lukoff 1978 등).

지금까지의 국어 존대말에 대한 연구는, 많은 학자들이 존대말이 갖는 문법적, 그리고 사회생활에서의 중요성을 깊이 인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주로 그것이 쓰이는 사회적 용법보다는 관련되는 언어 형태의 기술에 치중해 왔다.¹ 이러한 문법적 측면에서의 연구는 주로 보다 복합적 체계를 이루고 있는 청자 존대법에 그 논의가 집중되었고, 그 중에서도 청자 존대어의 핵심적 구성 요소인 “말(의) 단계”, 즉 종결어미의 교체형들에 대한 논의가 그

¹ 지금까지 발표된 한국 존대말에 관한 많은 논문 및 연구서가 당시까지의 연구 결과를 요약 소개하고 있다. 이方面的 연구 성과를 정리한 최근의 논문으로는 황적륜(1976)과 이정민(1982)이 있다. 또 현대 국어의 존대말 사용에 관한 사회언어학적 기술의 여러 시도에는 일련의 인류학, 언어학, 교육학 분야에서의 박사학위 논문들이 있다 (Howell 1967, 황적륜 1975, Dredge 1977, 박영순 1978, Song-Bradford 1979, 왕한석 1984).

중심을 이루어 왔다. 특히 이들 변이형들을 일련의 유의미한 단계들로 분류하는 문제가 많은 연구에서 그 중심부분을 이루어 왔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거의 모든 국어 문법서가 이 문제에 대해 그 나름대로 자세히 또는 간략히 나누어 왔고, 또 특히 지난 70년대 이래 많은 학자들이 청자 존대어의 구조에 대해 폭넓은 연구를 진행시켜 왔지만, 종결 어미의 단계 구분에 관한 논의는 아직도 정론화되지 않은 상태로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²

본 논문은 현대 국어에서의 “말(의) 단계”의 체계를 보다 적절히 기술하기 위한 방법론적 탐색을 그 기본 목표로 한다. 먼저 논의의 출발점을 제공하는, “말(의) 단계”의 구조에 관한 기존의 연구를 간략히 검토하고, 이어서 경험적 연구에 의해 파악된 한 농촌부락(지화리)에서 실제 사용되고 있는 “말(의) 단계”的 조작상을 기술할 것이다. 연구대상 지역내에서 청자 존대어의 주요 부분을 구성하는, 이 언어적 자원들에 대한 기술은, 일반적으로 언어 자체의 관점보다는 보다 광범한 사회 문화적 관점에 기반할 것이고, 또 연구자 자신의 직관적 판단보다는 언어 사용자들이 갖고 있는 용인할 수 있는 민간지식(folk knowledge), 그리고 관찰에 의해 파악되는 이 언어적 변수들의 실제 사용면에서의 규칙적 분포상에 보다 의존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상의 기술에서 도출되는 연구 결과에 의거하여, 앞으로의 보다 체계적인 국어 청자 존대법의 기술을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연구 단위의 선정과 관련되는 방법론적 문제를 제기할 것이다.

2. 말 단계의 구분에 관한 기준의 논의

지금까지 제시된 말 단계의 구분에 관한 대부분의 제안들은, 엄밀한 비교의 시작에서는, 적어도 사소한 견해 차이라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이 제안들 중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어떤 단계 구분의 주된 방향에 따라 대체로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을 것이다. 이 세 유형은 일반적으로 각기 시기를 달리하여 제안되어 왔다.

금세기 초반에 주로 제시된 소위 전통 문법학자들의 제안은 일반적으로 네 단계의 체계를 설정했던 것으로 보이며, 그 대표적인 예(<표 1> 참조)는 최현배(1959: 252-69, 313-14, 483-87, 499, 537-42, 550)에서 보인다. 당시 네 단계의 구분법과는 견해를 달리한 학자들은 가장 높임체인 ‘-나이다’와

² 한 예로 70년대 이래 이 방면의 연구에 많은 업적을 남긴 서경수(1972, 1980, 1984: 38-43)의 경우, 계기적으로 출판된 세 편의 연구에서 말 단계의 조작에 관한 필자 자신의 견해가 매 편마다 달라지고 있음을 본다. 이러한 예는 사회적으로 실재하는 말 단계의 구분이 매우 어려운 과제임과 동시에, 따라서 그것이 여전히 논란의 대상임을 시사해 준다.

〈표 1〉 말 단계의 구분 (1)

단 계	서 술 형	명령형
아주 높임	-나이다 -ㅂ니다	-소서 •
예사 높임	-이요 -오(소)	-어요 -오(소)
예사 낮춤	-네	-게
아주 낮춤	-다	-어라
(반말)	-어	-어

(최현배 1955: 252-69)

아주 높임의 ‘-ㅂ니다’를 분리시켜 다섯 단계를 설정하고자 했다. 그리고 대부분의 초기 문법학자들은 반말을, 특정 단계에 소속되지도 않고 존대 말의 전체 위계에서 독립된 등분을 형성하지도 않는, 특수형으로 취급하려고 했다. 이 초기 문법학자들의 제안은 말 단계의 구조에 대한 이후의 논의에서 기본 출발점이 된다.

주로 70년대 이후 활발히 제기된 또 다른 제안들은, 지난 수십년간 우리 사회에서 일어난 언어 변화에 직접 말미암은 것으로 보인다. 즉, 70년대에 들어서서 많은 학자들이, 금세기 초반의 언어 사실에 바탕하여 이루어진 전통 문법학자들의 제안이, 현재의 존대 말 사용 양상을 적절히 설명할 수 있느냐는 테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변화된 언어 사실에 부합하는 새로운 말 단계의 구분을 시도했다. 이러한 노력은 이후 대체로 두 유형의 서로 다른 제안으로 나타난다.

시기적으로 보다 이른 하나의 제안은 (〈표 2〉 참조) 여섯 단계의 체계를

〈표 2〉 말 단계의 구분 (2)

단 계	서 술 형	명령형
합 쇼 체	-ㅂ니다	-십시오
해 요 체	-어요	-여요
하 오 체	-오(소)	-오(소)
하 게 체	-네	-게
반 말 체	-어	-어
해 라 체	-다	-어라

(이익섭 · 임홍렬 1983: 229-34)

설정하는 것이다(Martin 1964, 이맹성 1973, 이익섭 1974, 박영순 1978: 27-31, 이익섭·임홍빈 1983: 228-37). 이 제안은, 현재 사용되는 존대말의 총체에서 古形인 ‘-나이다’를 제외하고, ‘-어요’ 형태를 두 높임 말 단계 사이에 독립적으로 위치시키고, 반말을 중간 낮춤말로 설정하는 특색을 가진다. 이 제안은, 초기의 전통 문법학자들의 제안 및 시기적으로 좀더 뒤에 일반화되는 새로운 제안과 비교했을 때, 외형적으로는, 언어 형태 그 자체 내의 차이점을 보다 중시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말 단계 구분에 대한 여러 제안들의 계기적 발달이란 측면에서는, 이 제안에서의 ‘-어요’와 반말에 대한 새로운 처리는, 초기 문법학자들의 제안과 뒤이은 제 삼의 유형간을 잇는 교량역할을 하는 것으로도 이해될 수 있다.

보다 최근에 비교적 널리 지지되어 온 것으로 보이는 제 삼의 제안(〈표 3〉 참조)은 말 단계의 조직을 단선적 체계가 아닌 이원적 체계로 이해하려는 것이다. 성기철(1970a, 1970b, 1985: 131-37)은 ‘-어요’ 형태와 반말을 각기 “두루 높임”과 “두루 낮춤”으로 재정의함으로써 이 새로운 접근의 문을 열었다. 단선적 위계에서 이원적 위계로 변형 조직된 이 제안은, 고영근(1974)에서 폭넓적으로 동의되고, 이후 여러 연구들에서 부분적으로 수정, 발달된

〈표 3〉 말 단계의 구분 (3)

단 계		명 형	
		령	형
아주 높임	두루 높임	-소서	-어요
		-십시오	
예사 높임		-오(소)	
		-게	
예사 낮춤	두루 낮춤	-여	-여
		-여라	

(성기철 1970 b)

단 계	명 형	
	격 식	비 격 식
단 계 1	-십시오	-세요
단 계 2	-오(소)	.
단 계 3	-게	
단 계 4	-라	-여

(황적륜 1975: 80-86)

단계	명령형		
	일반형태		특수형태
	격식	비격식	격식 또는 비격식
존재	-십시오	-어요	• -오(소)
비존재	-어라	-어	-게 •

(서정수 1980)

다(황적률 1975: 80-86, 서정수 1980, 1984: 38-43, 조준학 1982: 87-90 등). 특히 70년대 중반 이후에 발표되는 이 유형의 제안에서 보다 진전된 논의는, 동일 단계 내의 변이형들을 구분짓기 위한 “격식성(formality)”이란 수평적 차원을 분석적으로 설정하는 특색을 가진다.

위에서 간략히 기술된 세 유형의 주요 제안들은 구조적으로는, 어미 ‘-소서’, ‘-어요’, 그리고 반말에 대한 각기 다른 처리로 요약될 수 있다. 그러나 이 제안들 간의 상이점(특히, 초기 문법학자들의 것과 최근에 제안된 두 유형간의 상이점)은, 이미 부분적으로 언급한 대로, 기본적으로 말 단계의 전체 체계 내에서 이 문제되는 어미들이 일으킨 의미변화 때문인 것으로 파악된다. 즉, 가장 높임체인 ‘-소서’는 오늘날에 와서는 일상적인 말 쓰임에서 거의 사라졌고, 오직 초자연적인 존재와의 언어적 접촉과 같은 종교적 맥락에서만 잔존한다. 반면에 ‘-어요’와 반말은 전체 위계상에서 이 두 어미가 차지하는 지위가 상승 또는 하강하였거나, 또는 가장 최근의 제안들이 이 두 어미의 현재의 지위를 재정의하려는 시도에서 나타나듯이, 그 사용의 범위가 매우 확장되어 온 것으로 보인다.³

³ 세번째 유형의 제안에서 발견되는 기술상의 문제점은 아마도 “격식성”이란 단계 내의 차원을 설정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 용어를 채택하는 연구자들은 격식적 변이형과 비격식적 변이형을 각각 달리 구분지을 뿐 아니라, 개념 그 자체도 아직 명시적으로 정의하지 않았다.

격식성이란 명칭을 처음 소개한 황적률(1975: 83)은 이 단계 내적 차원을 말 상황(speech situations)의 격식적 축면과 관련지우지만, 더 이상의 충분한 설명을 진행시키지 않는다. 서정수(1980: 28)는 격식성이 동일 단계 내의 변이형 간에 문체적 차이를 갖는다는 사실을 암시하는 데서 그친다. 조준학(1982: 87)은 격식체가 비격식체보다 좀더 강한 “언표 내적 힘”을 갖는 것으로 본다. 이러한 매우 인상적이고 불분명한 개념 규정들 가운데, 보다 설득력 있는 개념의 설정은 Lukoff (1978: 271-72)에서 찾아진다. Lukoff에 의하면, 격식성의 차원은 모든 종결 어미가 표현하는 서법과 관련되어, 비격식형은 “개인적 태도나 감정의 자질”을 공유하고, 격식형은 “단언적이고

일차적으로 표준어를 대상으로 하여 기술된 이상의 종결어미 체계의 조직 및 최근에 일어난 그 내적 변화상에 대한 기본적 이해는, 본 연구의 조사 대상지와 같은 비서울 방언 지역에서의 존대말의 조직을 파악, 기술하는 데에 유용한 지침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동시에, 특정 언어 공동체 (speech community) 내에서 쓰이는 말 단계의 구분 및 각 단계를 구성하는 어미 형태의 확인, 그리고 그 공동체 내에서 최근에 일어났으리라고 가정되는 전체 체계상의 변화 범위를 파악하는 것은, 물론 경험적 연구에 의해 추적되어야 할 사항일 것이다.

3. 지화리에서의 말 단계의 조직

연구 대상지인 지화리는 경상남도 서북부에 위치한 농촌 부락으로, 1982년 초에 116가구 471명의 주민구성을 이루고 있었다. 이 마을의 거주역사는 최소한 14세기 중엽으로까지 소급될 수 있으며, 15세기 중엽 이래로는 두 문종 조직의 부계 친족원들이 집단적으로 거주해 온 소위 同族部落의 유형에 속한다. 또한 조사대상 마을은 근대 이전의 사회체계에서 명망 높은 班村으로 등급지어졌으며, 현재에도 그러한 문화적 전통의 특수성 때문에 전통적인 신분 구분의 잔재가 사회생활의 여러 영역에서 비교적 강하게 남아있는 곳이다. 요약하면, 지화리는 그 역사적 특수성으로 인하여, 최근 한국 사회 전체를 통해 급격히 펼쳐진 사회문화적 변화의 와중에서도, 비교적 보수적인 그리고 전통적인 생활양식을 많이 유지하고 있는 농촌부락으로 특징지을 수 있을 것이다.

(1) 말 단계와 그 구성형태

지화리 언어공동체의 노년층 화자들은 마치 구조주의 언어학자처럼, 다양한 종결어미들 간의 의미 차이를 세밀히 파악할 뿐 아니라, 나아가 이 어미적 선별 자질”을 함께 지닌다는 것이다.

위에 언급된 학자들은 모두 동일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각기 격식적 어미와 비격식적 어미를 나누는 데서 또한 차이를 보인다. 예를 들면, 황적륜(*ibid*)은 ‘-어요’와 반말단을 비격식 어미로 보고, 나머지는 모두 격식 어미로 가르는 반면, Lukoff (*ibid*)는 ‘-어요’, ‘-오’, ‘-게’, 반말, 그리고 부분적인 ‘-이라’체를 모두 비격식적 범주 아래 모은다.

조사대상 지역(지화리)에서의 화자들은, 대체로 ‘-어요’와 반말이 다른 어미에 비해 청자에게 좀더 “부드럽고 친밀한” 느낌을 전한다고 지각하고 있다. 그러나 그러한 의미 차질이 전체 종결어미의 조직에서 독립된 범주를 설정할 수 있을 만큼 두 드리지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게다가 이 두 어미가 규칙적인 사회적 분포를 보여주지도 않는다. 따라서 종결 어미를 구분짓는 격식성이란 새로운 축은, 물론 그것이 기술상의 문제라기 보다는 분석상의 문제이겠지만, 격어도 지화리 언어 공동체의 경우 적용되기 어려운, 아직까지는 하나의 가설적 개념으로 파악된다.

들의 전체 집합을 敬意의 정도에 따라 단선적 위계의 형식으로 등급짓는다. 다시 말하면, 일반적으로 개별 어미형태들 가운데에서 존대의 정도에 따른 사회적 의미(social meaning)가 유사한 것들끼리 하나의 部類(class)로 묶고, 이 부류들이 각기 독립된 말 단계를 형성하는 것으로 인지한다. 이렇게 분류된 각 단계들을 가르키는 민간명칭은, 동사 “하다”의 명령형 어미에서 빌려와, 각기 “‘하시오’ 한다”(‘하시오’체), “‘하소’ 한다”(‘하소’체), “‘하게’ 한다”(‘하게’체), “‘해라’ 한다”(‘해라’체), 그리고 “반말한다”(‘반말’체)로 불린다(<표 4> 참조).

각 단계를 구성하는 대표적 어미 형태들은 문장의 형식에 따라 <표 5>와 같이 요약된다. 이 대표적 어미들이 쓰이는 예문은 아래와 같다. (“제보자의 예문”은 동일한 지시적 의미의 문장을 각 말 단계에 따라 구성해 보라는

<표 4> 지화리에서의 말 단계 구분

명령형	단계
하십시오	‘하시오’ 단계
하시오	
해요	‘하소’ 단계
하오	
하소 (해)	(반말)
하시기 (해)	
하게 (해)	‘하게’ 단계
해라 (반말)	‘해라’ 단계

<표 5> 지화리에서의 말 단계와 대표적 어미

단계	명령형	의문형	서술형	청유형
하시오	-시오	- ^(시) 습니까 - ^(시) 어요 -시오	-ㅂ니다 -어요	-심시다 -시지요
하소	-어요 -소	-어요 -소	-어요 -소	-ㅂ시다
하게	-게	-ㄴ가	-네	-체
해라	-어라	-나	-다	-자
(반말)	-어	-어	-어	-어

조사자의 요청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므로 부분적으로 잘 쓰이지 않는 표현 양식도 포함되어 있다. “실제의 예문”은 전부 녹음 또는 관찰 기록에 의한 것으로, 대부분 현재 선택된 말 단계가 전체적인 담화의 맥락 속에서 일관되게 쓰이고 있는 예 중에서 추출한 것이다.)

가. 명령형 어미

[제보자의 예문]

‘하시오’체 : 담배 좀 갖고 오시오.

‘하 소’체 : 담배 좀 갖고 와요.

 담배 좀 갖고 오소.

‘하 계’체 : 담배 좀 갖고 오게.

‘해 라’체 : 담배 좀 갖고 오이라.

‘반 말’체 : 담배 좀 갖고 와.

[실제의 예문]

‘하시오’체 : “예, 잘 봐 주십시오.”

(45세의 남성화자가 35세의 비친족원 남성 화자에게 한 농담조의 대답, 술자리)

“저 양반 나 좀 보시오.”

(79세의 남편이 72세의 부인에게, 부인을 부르는 장면)

“할머이, 인자 조리하시오.”

(71세의 여성 화자가 91세의 12촌 조향에게, 병 문안 장면)

‘하소’체 : “××아버지, 농협에 있은돈 거기서 갖고 와요.”

(52세의 양반 계층의 부인이 49세의 상민 배경의 남성 청자에게, 길가에서 부탁 장면)

“대부, 담배나 한 대 주소.”

(67세의 부인이 60세의 원촌 庶出 조향에게, 청자의 집에서 잔치 일을 도와주는 장면)

‘하게’체 : “왕 박사, 어서 오시게.”

(70세의 남성 화자가 조사자에게, 청자의 집을 방문하는 장면)

“×서방, 어서 치게. ×서방은 많이 따게.”

(73세의 부인이 30대 초반의 9촌 질서에게, 화투놀이 장면)

‘해 라’체 : “××애미야, 나중에 이거 좀 가져 가자라.”

(72세의 부인이 54세의 질부에게, 화자의 집 마당)

‘반말’체 : “××할머이, 많이 들어.”

(62세의 양반 계층의 부인이 54세의 상민 배경의 부인에게, 과제

날 점심 대접 장면)

나. 의문형 어미

[제보자의 예문]

하시오'체 : 담배 값이 얼마니까?

장에 갔다 오시오?

하 소'체 : 담배 값이 얼마예요?

장에 갔다 오세요?

하 계'체 : 담배 값이 얼마만가?

장에 갔다 오는가?

해 라'체 : 담배 그거 얼마예요?

장에 갔다 오나?

반 말'체 : 담배 그거 얼마?

장에 갔다 와?

[실제의 예문]

하시오'체 : “이제 오십니까?”

(45세의 남성 화자가 49세의 친구에게, 술자리에서 한 농담조의 인사말)

“다른 거 머 저 있읍니까?”

(계 모임에서 총무가 계원 일동에게)

“아주머이, 장에 갔다 오시오?”

(35세의 부인이 62세의 13촌 속항에게, 길에서 인사 장면)

“아 저녁 잡셨어요? 그 별씨 주무시오?”

(61세의 남성 화자가 71세의 원촌 형님에게, 전화 통화 장면)

“대부 진지 잡셨어요?”

(61세의 남성 화자가 73세의 원촌 조항에게, 청자의 집을 방문하는 장면)

“××이는 언제 온다 캐요?”

(53세의 남성 화자가 73세의 11촌 속모에게, 원불교당에서)

‘하소’체 : “××아버지, 어디 가요?”

(62세의 양반 계충의 부인이 63세의 상민 배경의 청자에게, 인사하는 장면)

“이 오찌 저 밑으로 온체 왔소? … 이종 누우 아이라. ××가 ××가 뉘요?”

(55세의 남성 화자가 2세 연상의 누님에게, 중공서 온 편지를 읽을 때)

는 장면)

“영감, 아침 자셨소?”

(70세 양반 계층의 남성 화자가 85세의 상민 배경의 청자에게, 인사 장면)

“대부가 그거를 봤소?”

(65세의 남성 화자가 73세의 원촌 瘦出 조항에게, 공동 작업장에서의 환담 장면)

하게’체：“어제 ×××갔다 오셨는가?”

(73세의 남성 화자가 조사자에게)

“모 안 숨구는가?”

(71세의 양반 계층의 여성 화자가 40세의 상민 배경의 여성 청자에게, 들에서 인사를 받는 장면)

해라’체：“큰 고모 가셨나?”

(71세의 부인이 20대 후반의 14촌 아우에게)

“너는 왜 안 하노?”

(73세의 부인이 44세의 9촌 조카에게, 화투놀이 장면)

반말’체：“초 그거 열매 줬어 ?”

(46세의 부인이 44세의 비친족원인 친한 사이의 부인에게, 초파일 법당에서)

다. 서술형 어미

〔제보자의 예문〕

하시오’체：음에 좀 갑니다.

음에 좀 가요.

하 소’체：음에 좀 가요.

(음에 좀 갔다 왔소.)

하 게’체：음에 좀 가네.

해 라’체：음에 좀 간다.

반 말’체：음에 좀 가.

〔실제의 예문〕

하시오’체：“예, 어머이 저 안에 기십니다.”

(53세의 남성 화자가 73세의 11촌 속모에게, 원불교당에서)

“저는 들어 갔어요.”

(44세의 남성 화자가 73세의 9촌 속모에게, 화투놀이 장면)

“나 보다 모두 두 살 더 잡사요.”

(72세의 부인이 조사자에게, 화자의 집에서 환담 장면)

‘하소’체：“내가 그걸 못 배웠다 이말이요 아직까지. …시대의 조류를 못따라 가지고 문교부 혜택을 못 받았어요.”(40대의 상민 배경의 남성
화자가 55세의 비친족원 남성 청자에게, 술자리)
“××아버지, 점심 갖다 났소. 저어 있소.”

(44세의 양반 계층의 화자가 58세의 상민 배경의 청자에게, 공동
작업장)

‘하기’체：“우리는 이웃이 좋아서 입으로는 먹고 손으로는 안 받네.”
(72세의 남성 화자가 조사자에게, 농담 장면)

‘해라’체：“××아, 니가 오길 잘 했다.”

(73세의 부인이 53세의 11촌 조카에게, 원불교당에서)

“애 이놈, 형님한테 그리는 베이 아이다.”

(71세의 남성 화자가 72세의 친구에게, 농담 장면)

‘반말’체：“나는 동서가 나가 더 많은가 이겄어.”

(74세의 부인이 72세의 10촌 손아래 동서에게, 청자의 집에서 환
담 장면)

“그 비 오라고 안 그리야.”

(61세의 남성 화자가 59세의 원촌 조카에게, 환담 장면)

라. 청유형 어미

〔제보자의 예문〕

‘하시오’체：어서 타십시오.

어서 타시지요.

‘하 소’체：어서 탑시다.

‘하 게’체：어서 타세.

‘해 라’체：어서 타자.

‘반 말’체：어서 타.

古形의 가장 높임체였던 ‘-소서’체는 이 마을에서도 거의 사라졌다. 이 어미 형태는 일상적인 언어적 상호 작용에서는 사용되지 않으며, 이제는 서 한문의 형식에서 조차 거의 쓰이지 않고 있다. 오직 특수한 말 행위, 즉 조상신이나, 여러 종류의 俗神들이나, 또는 예수에게 기도를 드리는 말 행위에서만 남아 있다. [예문：“…나여지 모든 시간은 주님께 부탁드리오며, 이 노 땅님에게 주님 나라 갈 때까지 건강의 축복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40대 남자 집사의 기도문, 한 신도의 생일 친 치 장면]

어미 ‘-십시오’는 원래 이 지역의 토착 방언의 요소가 아니었고, 따라서 현행의 가장 높임의 단계는 ‘-시오’에 의해 대표된다. ‘-십시오’ 형태를 빈번히 사용하는 화자들은 거의 학교에서 표준어로 공식 교육을 받았거나, 또는 의지에서 비교적 장기간 거주를 한 경험이 있는 50대 이하의 남성 화자들이다. 반면에 동일 세대에 속하는 여성 화자들은 거의 ‘-십시오’ 어미를 사용하지 않는다. 이 어미가 이처럼 성별에 따른 사회적 분포를 보이는 것은, 아마도 여성 화자들이 전통적으로 외부 세계와의 사회적 접촉에서 매우 제한된 연계망(network)을 가져온 사실과 관련되는 것으로 보인다.

<표 4>의 명령형 어미 ‘-십시오’, ‘-시오’, ‘-시게’에 나타나는 형태소 ‘-시-’는 물론 분석적으로는 주체(또는 지칭자)를 위한 尊敬先語末語尾이다. 이 고착되어 있는 형태소는, 명령문에서처럼 발화의 주체가 청자와 동일인인 경우, 청자를 직접적으로 높이는 기능을 한다. 연구대상 공동체에서는, 나아가 ‘-시-’의 삽입 여부가 ‘하시오’ 단계와 ‘하소’ 단계를 구분짓는 주요한 기준이 된다(<표 5> 참조). 즉, ‘-어요’ 형태가 서술문 및 의문문의 일부(주체와 청자가 동일인이 아닌 경우)에서는 ‘하시오’와 ‘하소’의 두 단계에 모두 걸쳐 쓰이기 때문에, 이 경우 ‘-어요’ 만의 사용으로는 선택된 단계가 어느 등분인지 정확히 판별하기가 쉽지 않게 된다. 그러나 명령문과 의문문의 일부분에서처럼, 청자가 또한 지칭자를 겸하는 경우, 문제의 어미 ‘-어요’는 분명히 하위의 단계에 속하게 된다. 즉, 존경어미 ‘-시-’를 포함하는 어미들인 ‘-시오’, ‘-십니까’, ‘-시어요’는 가장 높임의 단계로 분류되지만, 그것이 없는 어미 ‘-어요’와 ‘-소’는 그 다음의 단계로 소속되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청유문에서도, 형태소 ‘-시-’를 가진 어미 ‘십시다’와 ‘-시지요’는 ‘하시오’ 단계에 속하지만, 그것이 없는 어미 ‘-ㅂ시다’는 ‘하소’ 단계가 된다. 그리고 초기 문법학자들의 분류와는 달리, 이 마을 내의 화자들은 ‘-오’ 형태가 ‘-소’ 형태보다 보다 높임말이나, 이 두 어미가 합쳐 하나의 ‘하소’ 단계를 이루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표 4> 참조). 그러나 실제의 대화에서 ‘-오’ 형태는 거의 쓰이지 않는다.

반말에 관한 이곳에서의 민간 지식은 최현배(1955: 254)의 기술과 거의 합치된다. 노인 화자들은 이 어미가 독립된 단계를 형성하지 않으며, 단선적 위계상의 위치는 ‘하소’ 단계와 ‘하게’ 단계의 사이, 또는 ‘하게’ 단계와 ‘해라’ 단계의 사이에 놓이는 특수형인 것으로 설명한다. 바꾸어 말하면, 반말이란 본질적으로 비존대와 비하대의 重義的 의미를 전달하며, 따라서 적어도 특정 낮춤말의 단계(즉, ‘하게’ 단계든지 또는 ‘해라’ 단계)의 선택을 회피하려는 의도를 지닌 화자들에 의해 조작적으로(manipulatively) 사용되는 어미이다. 그러므로, 종결어미와 호칭형태(forms of address, 협의의 호칭어

와 인칭 대명사를 포함하는 범주를 지칭함) 간의 이상적呼應관계에서, 이 특수 어미는 거의 아무 호칭 형태와도 결합되지 않은 채 쓰인다. 이러한 반말이 갖고 있는 원래의 중의적 의미와, 또 반말을 전략적으로 사용하는데에 필요한 말하기의 기술은, “반말하기가 참 어렵다”는 전래의 표현 속에서도 잘 숨겨져 드러난다.

그러나 이 공동체 내의 노년층 화자들의 의식상의 지식과는 달리, 현재 쓰이고 있는 반말은 분석적으로는 하나의 독립된 단계를 이루고 있다. 왜냐하면, 이 노인 화자들이 행하는 실제의 언어적 상호작용에서, 반말은 어떤 특수한 사회적 관계에 있는 청자에게 규칙적으로 선택되어 사용되기 때문이다. 반말은, 화자 자신들의 표현을 빌리면, ‘하소’ 단계를 쓰기에는 좀 “아깝고” ‘하게’ 단계를 쓰기에는 좀 “어려운” 자리이거나, 또는 ‘하게’ 단계와 ‘해라’ 단계 중 어느 하나를 분명히 선정하여 쓰기에는 좀 “어정쩡한” 자리에 주로 쓰이고 있다. 특히 이 언어 공동체의 경우, 최근의 신분적 지위의 변화로 인해 화자와 청자간의 사회적 관계가 과거처럼 명료히 정의되지 않는 상황에서, 반말은 효과적인 말하기의 수단으로 보다 널리 채택되어 온 것으로 보인다.

(2) 말 단계의 구분과 사회계층의 관련성

어떤 제보자들은, 특히 양반 계층의 제보자들은, 개별 말 단계들 간의 의미 차이의 정도가 결코 동등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이들의 의견에 의하면, ‘하시오’ 단계와 ‘하소’ 단계 간의 의미 차이가 가장 크고, ‘하소’ 단계와 ‘하게’ 단계 간의 의미 차이는 가장 작다는 것이다. 그러면 ‘하시오’ 단계만이 진정한 높임말이 되고, 대신 ‘하소’ 단계는 ‘하게’ 단계와 ‘해라’ 단계라는 두 낮춤말의 범주에 보다 근접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그러나 실제의 언어적 상호작용에서 ‘하시오’ 단계와 ‘하소’ 단계를 서로 교환하는 말씨관계는 현격히 불평등한 사회적 관계를 반영한다기보다 오히려 대화중인 두 사람이 서로 표현하는 경의의 정도에서 약간의 차이를 가진 높임체를 호혜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이 곳에서의 표현으로는 “相敬”하는 또는 “兩尊”하는 것으로), 제보자들은 이해한다. 반면에, ‘하소’ 단계와 ‘하게’ 단계, 그리고 ‘하소’ 단계와 ‘해라’ 단계를 서로 교환하는 말씨관계는, 둘 다 높임과 낮춤의 관계로 이해한다. 그러면 위의 민간 차원에서의 견해와는 달리, ‘하소’ 단계와 ‘하게’ 단계 간의 의미 차이가 보다 중요한 분석적 중요성을 띠게 되는데, 그것은 이 두 단계 간의 의미 차이가 높임말의 범주(또는 단계들)와 낮춤말의 범주(또는 단계들) 간의 경계를 이루기 때문이다.

위의 민간 차원의 이해에서 드러나는, ‘하시오’ 단계에 대한 과대평가와

‘하소’ 단계에 대한 과소평가는, 일차적으로 “尊長에게는 ‘하시오’ 단계만이 사용되어야 한다”는 말하기의 규칙에 대한 교육적 강조에서 연유된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이 두 말 단계의 개별적 지위에 관한 과장된 민간 이해는, 연구대상 공동체 내의 양반 계층 화자가 일반적으로 갖는, 언어적으로 표현되는 계급 정체성(class identity)과 관련되는 것으로 보인다. 즉, 이 마을 내의 양반 화자들은 대부분 ‘하시오’와 ‘하소’란 두 구분되는 말 단계의 각기 다른 사용법을 명확히 유지하지만, 이 공동체를 둘러싸고 있는 인근 지역 내의 많은 상민 배경의 화자들은 흔히 이 두 말 단계 간의 차이점을 분명히 구분하지 않은 채, 일상의 언어적 접촉을 수행하고 있다. 많은 경우, 이 상민 화자들은 ‘하소’ 단계를 유일한 높임말체로 사용하는 경향이 짙음을 관찰할 수 있다. 그렇다면 위의 민간 이해에는, ‘하시오’ 단계와 ‘하소’ 단계를 분명히 구분하는 양반 화자 자신들과 그렇지 못한 계층의 사람들과를 구획지으려는, 그럼으로써 자신들과 이 지역 내의 자신들보다 낮은 신분의 상민 층 간의 언어적 차이를 강화(reinforce)하려는, 양반계층 화자들의 숨은 태도가 반영되어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요약하면, 이 언어 공동체 내에서 주로 50대 후반 이상의 화자들이 사용하는 것으로 보고되는, 종결어미 체계의 단계 구분법은, 초기 서울 방언에 의거한 전통 문법학자들의 기술과 거의 일치한다. 여기서의 반말을 제외한 네 말의 단계는, 최현배(1955)의 용어로 “아주 높임”, “예사 높임”, “예사 낮춤”, “아주 낮춤”에 각기 대응될 수 있을 것이고, 나아가 이 공식적으로 인지되는 네 단계는 “높임말”과 “낮춤말”的 두 일반적 범주로 다시 묶여질 수 있을 것이다.

(3) 현재의 존대말 목록과 문화적 접촉

비서울 지역에서 행해진 두 평의 동일 주제에 관한 연구(Dredge 1977: 122-38, 최명우 1980: 66-93)는, 연구대상 공동체가 각기 班村으로 정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세 단계의 청자 존대법을 채택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이 두 연구 외에, 단일 촌락을 대상으로 행해진 존대말의 구조 및 사용 양상에 관한 보다 전면적인 경험적 연구의 결과는 거의 보고되지 않은 것으로 보여, 현재의 단계로서는 정확한 비교의 틀을 제시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조사대상 지역이 속한 경상남도 쪽의 많은 농촌 부락에서는, 전통적으로 두 단계 체계(아마 이 경우, ‘하소’ 단계와 ‘해라’ 단계), 또는 세 단계 체계(이 경우, ‘하소’로 대표되는 단일 높임말 단계, ‘하게’ 단계, 그리고 ‘해라’ 단계)의 청자 존대법을 널리慣用해 온 것으로 보인다. 이에 반해 지하리에서는, 과거 서울지역에서 사용되었던 (그것도 아마 상층계급에 의해

주로 쓰였던 유형으로 짐작되는) 것과 구조적으로 매우 유사한 네 단계 (반 말을 포함하면 다섯 단계)의 구분법을 실행하고 있다.

지화리에서 쓰이고 있는 이 매우 정교히 발달된 존대말의 목록(honorific repertoire)은, 아마도 최근까지 유지되어 왔던 이 부탁 특유의 문화적 전통과 깊이 연관되는 것 같다. 道內에서 사회적 위세가 가장 높은 곳 중의 하나로 널리 알려져 온 이 언어 공동체는, 특히 이조 후기에 들어서서 관직의 수행이나 혼인관계의 수립을 통해, 중부지역과 빈번히 접촉해 온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 (근세에 들어 사실상 이 부탁의 중심을 이루어 온 한 門中집 단은, 과거의 정치적 입장에서 南人이 아닌 老論이었다.) 또한 역사적으로, 이 부탁 내의 양반계층 주민들의 시작에서는, 말에 관한 예절뿐 아니라 다른 부면의 행동예절상의 모든 이상적 표준이, 서울지역의 보다 높은 사회적 위세를 누렸던 양반 계층들로부터 연원되었을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지화리에서 현재 발견되는 비교적 복합적인 존대말의 체계는, 서울지역과 이 부탁간의 특수한 문화적 접촉의 긴 역사로부터 결과된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이러한 사실에 상응하여, 이 공동체 내에서 쓰이고 있는 친족용이나 다른 문화적 어휘(cultural vocabulary)의 접함이, 비교적 이 지역 토착 방언의 형태보다는 오히려 표준어의 형태에 훨씬 근접해 있음이 또한 관찰된다.

(4) 말 단계에서의 공시적 면이상과 통시적 변화

마지막으로 지화리에서의 연구는, 말 단계의 사용유형이 화자가 속한 연령 범주(age category)에 따라 각기 다를 수 있다는 중요한 사실을 밝혀 준다. 앞에서 기술한 이 공동체에서의 종결어미 구분에 관한 모형(<표 4> 및 <표 5>)은, 실제의 언어 행위에서 모든 세대의 화자들에 의해 동등하게 지켜지는 것이 아니다. <표 6>에서 보듯이, 오직 60대 후반 이상의 화자들에게서만, 그들이 가진 의식상의 지식과 실제 사용간에 일치를 보인다. 대신 60대 초반과 50대의 화자들에게 있어서는, ‘하게’ 단계는 거의 반말로

<표 6> 연령 범주에 따른 말 단계 구분의 변화

60대 후반 이상	60대 초반 및 50대	40대 및 30대
하시오	하시오	하시오
하소 (반말)	하소	하소(?)
하게 (반말)	반말	반말 + 해라
해라	해라	

대치되어 사용되고 (즉, ‘하게’ 단계가 사용되는 또는 사용되어야 하는 곳으로 인지되는 청자에게, ‘하게’체 대신 반말이 주로 쓰인다. 그러나 ‘하게’ 단계와呼應관계를 이루는 ‘자네’, ‘이 사람’ 등의 호칭 형태는 아직 그대로 남아 쓰여, 이 경우 ‘반말’체와 새로운呼應관계를 수립한다.) 원래의 ‘하게’체는 주로 명령문에서만 남아 쓰인다. 40대와 30대의 화자들에서는, ‘반말’체와 ‘해라’체가 서로 구분되지 않고 거의 상호 교체적으로 사용되고 있는데, 대체적인 경향은 ‘해라’체 보다는 ‘반말’체가 더 빈번히 선택되는 것이다. 이 새로운 경향에 상응하여, 30대와 40대의 젊은 세대에서는, “반말 한다”라는 민간 차원의 高次언어적 명칭(folk metalinguistic label)이, 원래의 의미에서 단지 “말을 낮추어 하는 것”으로 변형되어 지칭되고 있음이 발견된다. 또한 이 세대에서는, ‘하시오’체와 구분되는 높임말 단계로서의 ‘하소’체를 사용하는 빈도수가 현저히 감소되어, 심지어 어떤 화자에게서는 독립된 ‘하소’ 단계의 존재 여부가 매우 의심스러울 정도이다. 아마 그런 경우, ‘하소’체란 기껏해야 단일 높임말 단계 내의 한 하위 단계의 구성소에 지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종결어미의 상이한 체계들이 연령 범주에 따라 규칙적으로 분포되는 이러한 공시적 변이성(synchronic variability)의 현상은, 무엇보다도 통시적 언어 변화의 방향에 관한 지시체(indicator)로 해석될 수 있을 것이다(Labov 1972). 왜냐하면, 세대에 따라 달리 나타나는 말 단계의 사용법이, 이 언어 공동체 내에서 일어나는 존대말 습득의 “발달적(developmental)” 측면과는 결코 무관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변화의 기본 방향은 네 단계(반말을 포함하면 다섯 단계)에서 두 단계 체계로의 이원화일 것이고, 현재 ‘하게’ 단계의 소멸은 거의 이루어진 상태이고, 다음에 사라질 단계는 ‘하소’ 단계가 될 것이다. 반면에 반말은, 원래의 특수한 미분류된 어미의 지위(민간 차원의 정의로는)에서, 단일 낮춤말 단계의 대표적 형태로 그 분포의 범위를 널리 확장시켜 왔다.

지화리에서 발견되는 이러한 말 단계에서의 단순화 과정은, 물론 우리 사회에서 근래 일어난 사회 문화적 변동에 의해 기본적으로 야기된 현상이겠지만, 변화과정의 어떤 측면들은 존대말의 체계 그 자체에 의해 부분적 설명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지화리 공동체의 경우, 낮춤말 범주에서의 변화가 높임말 범주에서의 변화에 선행되어 일어났음이 우선 주목된다. 이러한 변화 양상은, 존대말이 갖는 일반적 특징에 의해 설명될 수 있을 것이다. 즉, 존대말의 사용규칙이란, 일반적으로 비존대의 호칭 영역에서 보다는 존대의 호칭 영역에서 보다 명시적으로 형식화된다. 따라서 보다 규칙 지배적(rule-governed)으로 쓰이는 높임말 형태의 “逸脱的” 사용보다는, 상대적으

로 그렇지 않은 낮춤말 형태의 “잘못된” 사용이 사회적으로 멀 규제될 것이고, 나아가 이러한 이상적 규범을 “벗어나는” 말 단계의 사용법이 더 널리 사회적으로 허용되는 낮춤말의 범주에서, 규칙적인 변화가 먼저 일어날 수 있을 것이다. ‘하게’ 단계가 ‘반말’ 단계로 대치된 현상은, 전체 말 단계의 위계적 배열에서(〈표 4〉 참조) 이 두 단계가 위치상 가장 인접해 있고, 따라서 이 두 단계간의 존대의 정도에 따른 사회적 의미의 차이가 가장 근소하다는 사실에 직접적으로 연계될 것이다. 그리고 ‘반말’ 단계의 확대 사용 현상은, 이 어미가 본질적으로 갖는 의미의 중의성, 즉 “말을 낮춘다”는 기능을 명확히 드러내지 않음으로써, 청자에게 비교적 “부드럽고 친근한” 느낌을 전달한다는 사실에서 유발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4. 요약 및 결론

지화리에서 사용되고 있는 말 단계의 체계에 관한 지금까지의 기술은, 존대말을 그것과 관련되는 포괄적인 민족지적 맥락(ethnographic context) 속에서 다루어 보려는 시작을 취했다. 왜냐하면, 말의 체계(a speech system)란 어떤 특정사회 내의 전면적인 사회문화적 체계의 통합적 일부분을 이루기 때문이다. 또 이상의 기술은, 한국 존대말에 관한 기존의 연구에서 그리 많지 않은 예인, 연구자의 직관적 판단이나, 인위적으로 고안된 상황, 또는 전체 사회로부터 수집된 단편적인 언어 사실 등에 의존하기보다는, 한정된 소규모의 공동체 내에서 실제로 일어나는 언어행위(communicative behavior)를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어진 자료를 주로 기술, 분석한 것이었다. 그러나 지화리에서 발견되는 말 단계의 조직 유형은, 아마도 현재의 한국 사회 전체로는 확대, 적용될 수가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곳에서의 매우 정교히 발달된 존대말의 목록은 무엇보다도 이 부락 특유의 역사적 배경 속에서 생성, 발전된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동시에, 여기서 사용되고 있는 존대 말 목록의 중요 부분들은 전근대 사회의 상층계급에서 일반적으로 공유되었던 청자 존대어의 전통적 유형을 유지할 것으로 짐작된다.

지화리에서 수집된 자료는, 개별 언어 공동체 내의 공식적 이질상을 모든 언어 변화의 근원으로 간주하려는 이론 모형(Labov 1972, Wang 1969, Bickerton 1973)이, 국어 청자 존대어의 영역에도 적용될 수 있음을 입증한다. 즉, 앞서의 기술은, 이 공동체에서 사용되는 말 단계의 전체 체계 내에서 근래 일어난 실제의 변화과정을 명확히 밝혀 준다. 이 구체적인 변화의 과정은, 많은 관련 학자들이 종결어미 체계상의 새로운 변화내용을 수용할 수 있는 모형을 고안하려는, 70년대 이래의 계속된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금껏 분명히 파악되지 않았던 사실이다.

지화리에서의 말 단계 체계의 구체적 변화과정에 대한 발견은, 앞으로의 부문에 대한 연구에 두 가지 중요한 함의를 지니는 것으로 생각된다. 첫째는, 다른 지역에서의 말 단계 체계상의 최근의 변화상을 다루려는 앞으로의 연구에 지화리에서의 연구 결과가 하나의 모형(즉, 연령 범주에 따른 상이한 말 단계 체계들의 규칙적 분포와, 언어 변화의 방향 간의 밀접한 상관관계)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이다. 둘째는, 만일 다른 지역에서도 말 단계의 전체 체계상에 뚜렷한 변화가 최근 일어나기 시작했다면, 특정 연구 대상 공동체에서의 청자 존대어의 체계를 기술하는 데 있어서 지금까지 주로 채택되었던 靜態的 構造(static structure)의 기술을 위한 접근방식보다는 動態的 過程(dynamic process)의 기술을 위한 접근방식이 보다 적절할 수 있다는 점이다.

지화리의 존대말 목록에 관한 이상의 기술은, 단순히 한국 존대말의 특정 방언지역에서의 변이상을 제시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왜냐하면, 위의 기술은 존대말에 대한 기준의 언어학적 접근방식이 내포하는 중요한 방법론상의 문제점을 또한 제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지화리에서의 자료는, 상이한 말 단계의 구조가 연령, 성, 계급 등의 기본적 사회범주에 따라 사회적으로 분포될 수 있다는 사실을 시사해 주는데, 이 중 계급 성원권에 따른 존대말 목록의 상이한 분포는 특히 주목할 가치가 있을 것이다. 지화리 인근 지역의 경우, 이미 언급한대로, 양반 계급의 화자들은 상민 계층보다 더 많은 수의 유의미하게 구분되는 말 단계를 사용할 뿐만 아니라, 보다 복합적이고 형식화된 존대말의 사용규칙을 유지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바꾸어 말하면, 말 단계의 조직에 관한 기준의 언어학적 모형들은 대부분 존대말의 사회적 변이상을 간과한 것으로 보인다. 이를 언어학적 연구는 표준어를 대상으로 한 자신들의 존대말에 대한 기술이, 적어도 서울지역 내의 화자들에게 일반적으로 공유된다고 묵시적으로 가정함으로써, 사회계급과 존대말 사용유형 간의 밀접한 상관관계를 상대적으로 경시해 온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지화리에서의 자료는, 말 단계의 분류 및 말하기의 문화적 관행이란 측면에서의 존대말의 사용법이 동일 지역 방언을 공유하지만 계급 성원권과 가족 배경을 달리하는 화자들 간에 서로 다를 수 있음을 보여 준다.⁴ 최근까지 우리 사회에서 존대말 사용의 “의사소통 능력(communicative

⁴ 비록 극단적인 예이긴 하지만, 이에 상응하는 현상으로는 지금은 사라진 궁중 언어를 들 수 있다. 김용숙(1970: 368-400)의 보고에 의하면, 이 특수한 상황에서 쓰인 존대말의 체계는 궁중을 벗어난 일반 사회에서는 쓰여지지 않았던, 특수형의 존칭 호칭어, 인칭대명사, 종결 어미의 사용으로 특징지어졌다. 특히 여기서의 말 단계 조직의 핵심을 이루었던 것은 고형의 가장 높임체인 ‘-소서’ 체였던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competence)"의 습득은, 공식적인 학교 교육보다는 가정 내에서의 언어 교육에 의해 주로 이루어져 왔고, 따라서 존대말의 내용은 화자의 전통적 계급 성원권과 밀접히 상호관련된다. 이러한 신분적 지위에 따른 존대말 행위의 상이한 종류는, 근래까지 우리 사회에 지속되어 온 것으로 보이는데, 그 것은 일차적으로 계층을 달리하는 화자들 간에 언어적 상호작용을 위한 사회적 연계망과, 언어행위 자체에 대한 가치관 및 신념 체계가 서로 협력해 달렸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요약하면, 말 단계의 분류는 단순한 언어적 현상만이 아니라, 언어적 그리고 사회적 행위의 결합된 영역에 속한다. 개별 어미들을 구성하는 언어형태는 특정 방언 집단 내의 화자들에 의해 공유될 수 있지만, 그 형태들을 일정한 부류로 조직하는 것(즉, 단계로 구분하는 것)은 그 집단 내의 모든 화자들에게서 동일한 방식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 한국 사회에서는 전통적으로 언어 예절의 지식과 그 수행은 오히려 사회계급에 따라 달리 분포되어 온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국어의 말 단계에 관한 보다 적절한 기술을 위해서는, 지금까지의 예처럼 연구의 단위를 개별지역 방언으로 삼을 것이 아니라, 말 단계에 관한 언어적, 문화적 지식이 구성원들 간에 공유되는 것으로 기대되는, 어떤 사회적으로 정의된 집단(a socially defined group), 또는 사회적 연계망의 군집(cluster of social networks)으로 정해져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고영근 (1974) '현대 국어의 존비법에 대한 연구,' 어학연구 10.2, 66-91.
 김용숙 (1970) 이조 여류 문학 및 궁중 풍속의 연구, 숙명여대 출판부, 서울.
 박영순 (1978) *Aspects in the Development of Communicative Competence with Reference to Korean*, Ph.D. Dissertation, University of Illinois, Urbana-Champaign.
 서정수 (1972) '현대 국어의 대우법 연구,' 어학연구 8.2, 78-97.
 _____ (1980) '존대말은 어떻게 달라지고 있는가 ?(II),' 한글 167, 3-33.
 _____ (1984) 존대법의 연구, 한신문화사, 서울.
 성기칠 (1970a) '존비법의 한 고찰,' 어문학 23, 125-34.
 _____ (1970b) '국어 대우법 연구,' 충북대학 논문집 4, 35-57.
 _____ (1985) 현대 국어 대우법 연구, 개문사, 서울.
 안병희 (1967) '한국어 발달사 중,' 한국 문화사 대계 V (언어문학사), 165-

- 261, 고려대 민족문화 연구소, 서울.
- 왕한석 (1984) *Honorific Speech Behavior in a Rural Korean Village: Structure and Use*, Ph.D. Dissertation, University of California, Los Angeles.
- 이맹성 (1973) ‘Variations in Speech Levels and Interpersonal Social Relationships in Korean,’ 한산 이종수 박사 송수 기념 논총, 109-42, 삼화 출판사, 서울.
- 이승녕 (1964) ‘경어법 연구,’ 진단학보, 25·26·27, 309-66.
- 이익섭 (1974) ‘국어 경어법의 체계화 문제,’ 국어학 2, 39-64.
- 이익섭·임홍빈 (1983) 국어 문법론, 학연사, 서울.
- 이정민 (1982) ‘한국어 경어체계 연구의 제 문제,’ 한상복 편, 한국인과 한국문화, 220-39, 삼설당, 서울.
- 장석진 (1973) *A Generative Study of Discourse: Pragmatic Aspects of Korean with Reference to English*, 어학연구 9.2(별권).
- 조준학 (1982) *A Study of Korean Pragmatics: Deixis and Politeness*, Ph.D. Dissertation, University of Hawaii, Honolulu.
- 최명옥 (1980) 경북 동해안 방언 연구, 영남대 민족문화 연구소, 경산.
- 최현배 (1955) 우리말본, 정음사, 서울.
- 허웅 (1964) 중세 국어 연구, 정음사, 서울.
- 황적륜 (1975) *Role of Sociolinguistics in Foreign Language Education to Korean and English Terms of Address and Levels of Deference*, Ph.D. Dissertation, University of Texas, Austin.
- _____ (작성) (1976) ‘국어의 존대법,’ 언어 1.2, 191-200.
- Bickerton, Derek (1973) ‘The Nature of a Creole Continuum,’ *Language* 49, 640-70.
- Brown, Penelope and Stephen Levinson (1978) ‘Universals in Language Usage,’ in Esther N. Goody, ed., *Questions and Politeness*, 56-289, 295-310, Cambridge University Press, Cambridge.
- Dredge, C. Paul (1977) *Speech Variation and Social Organization in a Korean Village*, Ph.D. Dissertation, Harvard University.
- Ervin-Tripp, Susan (1969) ‘Sociolinguistics,’ in Leonard Berkowitz, ed., *Advances in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4, 91-165, Academic Press, New York.
- _____ (1972) ‘On Sociolinguistic Rules,’ in John J. Gumperz and Dell H. Hymes, eds., *Directions in Sociolinguistics*, 218-50, Holt, Rinehart and Winston, New York.

- Gumperz, John J. (1964) 'Linguistic and Social Interaction in Two Communities,' *American Anthropologist* 66.6 Part 2, 137-53.
- Howell, Richard W. (1967) *Linguistic Choice as an Index to Social Change*, Ph.D. Dissertation,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
- Labov, William (1972) *Sociolinguistic Patterns*, University of Pennsylvania Press, Philadelphia.
- Lukoff, Fred (1978) 'Ceremonial and Expressive Uses of the Styles of Address of Korean,' in Chin-W. Kim, ed., *Papers in Korean Linguistics*, 269-96, Hornbeam Press, Columbia.
- Martin, Samuel E. (1964) 'Speech Levels in Japan and Korea,' in Dell H. Hymes, ed., *Language in Culture and Society*, 407-12, Harper and Row, New York.
- Song-Bradford, Linda Mari (1979) *Reflections of Status and Intimacy in Korean Speech Levels, English Code, and their Use in Dyadic Conversations between Bilingual Korean*, Ph.D. Dissertation, American University.
- Wang, William S.-Y. (1969) 'Competing Changes as a Cause of Residue,' *Language* 45, 9-25.

ABSTRACT

Toward Describing the Organization of Korean Speech Levels

Hahn-Sok Wang

This paper attempts to discuss some methodological problems in describing the system of speech levels in Korean. It starts by briefly reviewing previous studies of speech-level classification done primarily by grammarians. The main body of the paper is devoted to presenting the actual organization of speech levels, which is a product of empirical research in a rural Korean village, Cihwali (pseudonym). This presentation consists of the identification of levels and their constituent forms, distinction between levels and its implication of class identity, the current honorific repertoire as a result of cultural contact, and synchronic variability and diachronic change in speech levels. And the whole description emphasizes treating honorifics in their

broad ethnographic context.

In summary and conclusion, the paper points out that most previous linguistic models on the organization of speech levels have overlooked the close relationship between social classes and patterns of honorific usage. It is addressed, therefore, that an adequate description of speech levels must be based not upon a regional dialect but upon a socially defined group whose members are expected to share both related linguistic and cultural knowledge.

151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

서울대학교 사회대학

인류학과

(접수: 1986. 8. 25)